
2024년 업무계획

2024. 2. 28.

[목 차]

I. 업무 실적 및 계획

가. [국제]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1. 2024 서울총회의 성공적 개최
2. 대외 국제협력 강화

나. [권익] 계리사법을 제정하여 권익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1. 계리사법 제정을 통한 계리사 권익 제고
2. 계리사 대내·외 홍보 강화

다. [자율규제] 자율규제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1. 자율규제 체계 확립·역할 강화
2.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정착
3. K-ICS 실무매뉴얼 개정

라. [회원] 회원 주인인 계리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 회원 소속감 제고를 위한 그룹별 행사 개최
2. 회원 실질적 혜택 증진
3. 신규 법인회원사 확대

마. [연수] 회원 전문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1. 이론 중심의 온라인, 실무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 과정 확대
2. 회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바. [운영] 회 운영의 안전성·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 새로운 운영 체계 정립
2. 회 재무 안전성·수익성 제고
3. 회 사무실 이전
4. 상근 직원 전문성·연속성 강화

I. 2023 업무실적 및 2024 업무계획

가 [국제] 2024 IAA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주관	국제협력단, 국제지원위원회
담당자	정도희 팀장, 송승연 선임
2023 주요 실적	(1) 2024 IAA 서울 총회 준비위원회 운영(IAA 임원단 내한) (2) 2024 IAA 서울 총회 홍보단 파견(호주) (3) 2024 IAA 하반기 총회 출장(리스본) (4) 관광당국 국제회의 지원금 확보(홍보단계) (5) 해외계리사회 협력·교류(SOA Joint 세미나, IAJ ASEA 협조 등)

1. 2024 국제계리사회(IAA) 서울 총회의 성공적 개최

□ 2024년 5월 20일(월)부터 5월 24일(금) 까지 4박 5일 동안, 쏘 세계 계리사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2024 국제계리사회(IAA) 총회*’ 서울 개최

* 아시아 국가에서는 2번째로 개최되는 2024 서울총회에서는 IAA 이사회, 위원회 등을 통해 보험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계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한 포럼 등이 진행

○ 서울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작년부터 준비위원회를 가동하여 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 IAA 사무국, 관광 당국, 회원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서울 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할 예정

※ 본회 주관 하에 타운홀 미팅, 공식 만찬, 웰컴 리셉션 및 공식 투어 등 진행

□ 이번 서울 총회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내 보험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로 마련하고자 함

2. 대외 국제협력 강화

□ 국제계리사회(IAA) 총회, 아시아계리사총회(AAC) 등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 IAA : 한국(5월), 에스토니아(9월), AAC: 홍콩(11월) / 한국은 2027년 AAC 개최국으로 국제협력단 벤치마킹 출장 예정

○ 장기적인 육성 차원에서 주니어 계리사의 국제회의 참석 적극 독려

□ 해외 계리사회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 일본 : ASEA(동아시아계리세미나) 본회 참가인원 확대 및 절차 지원

○ 미국 등 : 본회 회원 중심 공동세미나 개최 등 협력 검토

나

[권익] 보험계리사법을 제정하여 권익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주관	보험계리사법 제정 추진단
담당자	(법) 정도희 팀장, (홍보) 송승연 선임
2023 주요 실적	(1) 보험계리사법안 발의 (2) 보험계리사 표준어 등재 (3) 보험계리사 인물정보 등록

1. 보험계리사법 제정을 통한 계리사 권익 제고

- 계리사 제도를 별도의 전문자격사 법률로 제정하여 제도 발전과 동시에 계리 서비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법안은 지난 11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며 소관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을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
- 2024년 법 제정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

보험계리사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계리사 업무, 자격 및 결격사유 규정
제2장. 보험계리사 시험	계리사 시험에 관한 규정
제3장. 보험계리사의 등록	계리사 등록에 관한 규정
제4장.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	계리사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
제5장. 보험계리법인	계리법인에 관한 규정
제6장. 한국보험계리사회	계리사회에 관한 규정
제7장. 감독	계리사, 계리법인 등의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장. 징계	계리사, 계리법인 징계에 관한 규정
제9장. 보칙	업무의 제한, 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10장. 과징금	과징금에 대한 규정
제11장. 벌칙	벌칙에 대한 규정

※ 보험업법 및 산하 법령 내용과 타 전문자격사 법령 체계를 준용

2. 보험계리사 대내·외 홍보 강화

- 계리사(회) 홍보를 강화하여 계리사(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나아가 공익 역할 기반 마련(정관 제3조(사업), 공익 역할 신설)
- 일반 국민 및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 관련 전문가로서의 계리사 역할을 홍보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실시(제4기 IAK 서포터즈를 통한 대외 홍보 강화)

대외 홍보 방안

대상	목적	주요 내용
일반 국민 (보험소비자)	계리사 역할 홍보	보험 상품·계리 등 생소한 내용을 주제로 한 Q/A 게시판 운영
학생	진로 정보 제공 및 취업률 증가	(1) 초등~고등 의무 진로교육 시간에 계리사 직업정보 제공 (2) 직업박람회 참가, 컨퍼런스 등 개최

- 내부적으로는 본회 회원 등을 대상으로 추진 업무·주요 실적 등을 수시 홍보(홈페이지, 카카오톡, 뉴스레터 등 적극 활용)

다

[자율규제] 자율규제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주관	계리실무기준원, 가정관리위원회, 계리실무기준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험회계위원회, 상품위원회
담당자	정도희 팀장
2023 주요 실적	(1)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2) K-ICS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제정 (3) IFRS17 계리보고서 제정 (4) 자율규제 체계 보고서 제정

1. 자율규제 체계 확립 · 역할 강화

- 정관 사업 부문에 ‘계리실무 제반기준’ 제 · 개정이 신설(23년 2분기), 자율규제 역할을 강화하여 독립성 · 객관성 · 전문성을 갖춘 자율규제기구로 발돋움(자율규제위원회 신설)
 - 현재 채택 중인 한국계리실무기준(KSAP) 및 각종 계리 관련 실무기준* 체계적 관리(개정 사항 점검 등)
 - * 가이드라인, 실무매뉴얼 IFRS17 계리보고서 및 계리적가정 실무기준 등
 - 나아가 실효성 있는 계리실무기준 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 홍보를 확대하고, 연수 과정과도 연계
- 또한, 자율규제 차원에서 회원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윤리기준 · 연수규정 등을 재정비
 - 2017년 개정 이후, 관리가 미흡한 계리사 1차 · 2차 시험 실라버스 개정 작업도 함께 실시(IFRS 17 도입 등의 제도 변화 반영)

2.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정착

- 외부검증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이 IFRS 17 하에서 검증 업무의 실효성 제고와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용·정착 지원
 - 표준검증시간 제도, 검증 실무매뉴얼 등은 검증기관과 피검증사 등의 실제 검증 데이터·사례 등을 취합하여 개선(장기적으로는 본회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검증 관련 감리 역할 수행 검토)
 - 외부검증기관 품질관리 핵심지표는 매 7월말 까지 취합·감수하여 피검증사 대상 정보 제공, 외부검증의 선순환 구조 확립(피검증사는 제공 정보를 확인하여 우수한 외부검증기관을 선택하고, 외부검증기관은 핵심지표를 상시 관리하여 검증 품질 향상 도모)
- ※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한국보험계리사회 보도자료 참고(2023.6.15./ 보험회사 IFRS17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이 충실히 수행되도록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매뉴얼」 개정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별표 22 등)에 따른 K-ICS 검토보고서 실무매뉴얼 개정
 - 나아가 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에 따른 외부검증이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외부검증기관 대상 실무매뉴얼 정착 지원 등

라**[회원] 회원이 주인인 계리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관	회원관리본부, 회원관리위원회, 홍보위원회
담당자	김수연 선임, 송승연 선임
2023 주요 실적	(1) 회원 규모 확대(개인: +223명, 법인: +1개사 등) (2) 2023 IAK 심포지엄 개최(역대 최다 회원 참석, 1,475명) (3) 제1회 예비 계리사 대상 컨퍼런스 개최 (4) 제3기 IAK 서포터즈 운영 (5) 제46회 보험계리사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개최 (6) 주니어·시니어 회원 교류의 장 개최 (7) 홈페이지 개편 등

1. 회원 소속감 제고를 위한 그룹별 행사 개최

□ 회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소속감 등을 제고하기 위한 회원 전체 및 그룹별 다양한 행사 기획·개최

2024 주요 행사 일정(안)

대상	행사명	개최시기
전체	제61기 정기총회	2월
전체	심포지엄	6월
전체	제61주년 기념 송년의 밤	12월
예비 계리사	예비 계리사 컨퍼런스	1분기
최종 합격자	제47회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10월
사원/대리급 회원	회원 교류의 날	4분기
임원급 회원	임원 워크숍	3분기
시니어 회원	회원 교류의 날	4분기
직군별 회원	상품·계리 직군 교류의 날	수시

2. 회원 실질적 혜택 증진

- 제공 중인 혜택을 보완하고 타 전문가 단체 등을 벤치마킹하여 신규 혜택을 마련하는 등 회원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
 - 회원 설문 조사 등을 통해 회원이 원하는 혜택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하기 개선 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하여 회원 혜택을 개선할 예정

3. 신규 법인회원사 확대

- 본회 법인회원사로 미가입된 보험사, 재보험사, 계리법인, 컨설팅사, 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신규 법인회원 가입 추진

신규 법인회원사 가입 추진 대상

구분	회사명
손해보험사	ACE,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재보험사	원헨리, 스위스리, 스코르리, 퍼시픽리 등
계리법인	GS, 글래스, 나라, 선금융, 프라임 등
회계법인	삼일, 안진 등
컨설팅사	AON, FIS, RNA, 윌리스타워스왓슨 등

마**[연수] 회원 전문성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주관	계리연수원, 교육위원회, 계리연구원, 계리학연구위원회 등
담당자	정도희 팀장, 윤강현 선임
2023 주요 실적	(1) 16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시행(512명 회원 수강) (2) 보험연합학술대회 개최 (3) IFRS 17 세미나, 리스크관리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등

1. 이론 중심의 온라인 교육, 실무 중심의 오프라인 교육 과정 확대

- 계리연수원을 통해 시·공간 제약이 덜한 온라인 교육 확장 개설 및 실무 중심의 집합 교육 강화
 - 나아가 계리·상품·리스크관리 분야 외에도 회원 전문성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도 신설 예정
- 2024년부터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보수교육이 의무화(보험업감독규정 개정)되어, 지원조직 대상 연간 교육프로그램 제공
 - 생명·손해보험 등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인력 현황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연간 최소 15시간 이상)
 - 생명·손해보험 선임계리사협의회를 통해 교육 계획 홍보(연초)

2024년도 교육과정 개설 계획(안)

개설시기	구분	과목명
1월	공통	IFRS17 기초과정
2월	공통	IFRS17 실무사례
3월	계리	위험률 산출 이론 및 실습
3월	상품	IFRS17 상품수익성분석 방법론
4월	선임계리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과정 (생명보험)
4월	상품	상품프라이싱 이론 및 실습
4월	리스크	재보험 과정

6월	계리	계리 기본 과정
6월	공통	Python 실습 과정
6월	선임계리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과정 (손해보험)
7월	계리	IFRS17 현금흐름 검증방법론
7월	리스크	리스크관리 기본 과정
8월	상품	변액보험상품 과정
8월	계리	할인율의 이해와 적용
8월	공통	보험계리업자등록전 사전교육
9월	공통	IFRS17 금융공학 이해 및 실습
9월	상품	보증준비금 산출 및 실습
9월	선임계리	선임계리사 과정
10월	상품	제3보험 과정
10월	계리	최적가정 과정
10월	계리	계리 심화 과정
11월	리스크	리스크 심화 과정
11월	공통	보고서 작성 및 커뮤니케이션
11월	공통	IFRS17 실무사례 과정
12월	계리	IFRS17 보험부채
12월	공통	IFRS17 경영관리
12월	연금	연금계리 과정

* 상기 교육과정의 일정은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 심포지엄(6월), 보험연합학술대회(8월) 및 다양한 세미나 등을 통해 업계 이슈 파악하고, 논의·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 IFRS 17, K-ICS 등의 핵심 주제 외에도 빅데이터, AI 등 장기적 해안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 개최
- 회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해외계리사회, 국내 학회 등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

주관 집행위원회, 재무위원회, 사무처

담당자 정도희 팀장, 김수연 선임

1. 새로운 운영 체계 정립(제27대 집행위원회)

- 새로이 구성되는 제27대 집행위원회가 기존 업무와의 연속성을 갖추고 회 운영의 신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기존 활성화된 기구 및 위원회의 활동은 장려하고, 비활성화된 기구 및 위원회의 활동을 독려하여 공백 없는 업무 추진
 - 나아가 2024년 임기 만료 이사 관리(연임, 교체 및 공석 법인회원사 신규 선임 등)

2. 회 재무 안전성 · 수익성 제고

- 자율규제 · 공익 등 회 역할이 확장되고 관련 업무가 신설되어 재원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적립금의 30% 이내로 채권이나 배당주 등 고금리 상품 등에 투자하여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 * 현재 적립금 15억 8천만 원(14억 원 : 시중은행 정기예금 / 1억 원 : 새마을금고, 0.8억 원 : 보통예금(유동성 차원))을 금리 약 4%로 운용 중
 - 2014년 이후 동결 중인 계리법인 법인회비 기준 개정을 통한 재원 확충(보험사의 경우 자산 및 수입보험료 증가에 따라 증액된 회비로 책정되나, 계리법인 등은 10년 째 200만원으로 동결)
 - 보험사와 같이 규모별 계리법인 법인회비 산출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사 간 형평성 제고(회 다수의 사업이 계리법인 권익 제고와 관련되어 있음)

- 입회금 제도 도입, 개인회비 인상, 검증 수수료 제도 도입 등을 추후 계리사법령 제정과 연계하여 검토 예정

3. 회 사무실 이전

- 본회가 임차 중인 코리안리빌딩의 재건축이 확정, 임차 계약 종료 (2024년 12월 예정)에 따른 회 사무실 이전 방안 마련

본회 임차 계약 현황

면적		보증금	월세 (VAT, 관리비 포함)
공급 : 95평 (강의실 : 39평)	전용 : 64평 (강의실 : 26평)	7,100만원	1,150만원/월 (강의실 : 500만원/월)

※ 코리안리재보험 측 지원으로 현재 강의실 임차료는 면제 중

- 사무실 이전 시, 합리적인 예산 내에서 효율적 공간 활용을 통해 회원(사) 활용도 제고(회원사 대상 강의실·회의실 무료 개방, 생·손보선임계리사협의회, 계리법인협의회 정례회의 장소 사용 등)
-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한 후, 2024년 3분기 내로 최종 이전 방안 마련 예정

4. 상근 직원 전문성·연속성 강화

- 사무처 인력 정규화로 근속 연수(평균 근속연수 5.5년)가 증가되어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증진되었으며, 담당 업무 별 필요 역량 개발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업무 수행 환경 마련
- 회화 능력, 온라인 플랫폼 활용 능력, 회계·세무 부문 이해도 제고 등 사무처 역량 강화 도모
- 나아가 직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비현금성 복지 확대 검토